환경 위기 극복, 예술은 어떤 목소리를 낼까

ACC 레지던시 발표전 '바이오필리아, 그 너머' 전, 5월 19일까지 복합 2관

22명 참여 지구와 공생 모색…오늘, 연구결과 발표 원탁회의 유튜브 생중계

동물과 식물이 모두 사라진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환경파괴로 동식물이 모두 멸종돼 버린 지구에서 남겨진 일부 데이터를 복원해 가짜 식물원을 조성한다. 일명 '포니 가든'(Phony garden). 이곳에서 관객은 단순히 전시의 관찰자로 남을 수 없다. 디스토피아를 유발한 당사자로서 공간을 부유하게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이 지난 19일부터 복합2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필리아(생명사랑), 그 너머'전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김윤정과 김샛별로 이루어진 팀 신시가지의 '포니 가든'은 환경 위기인 '인류세'를 초래한 인간을 타자화한다. 신시가지는 R 크리에이터스 분야로 참여했으며 이번 작품은 인간 너머의 차원에서 지구의 희망을 상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명사랑, 그 너머'전은 2021 ACC_R 레지던시 결과 발표전으로 기획됐으며 오는 5월 19일까지 펼쳐진다. 출품작은 모두 19편으로 융복합 기반 작품 외에도 전통공예의 현대적 해석 작품, 아시아 공동창작 공연 연구물 등을 매개로 생명사랑을 다양하게 풀어낸 작품들이다. 참가자들은 모두 4개 분야 22명으로 예술과 기술을 비롯해 연구와 비평, 디자인 등 국내외 창제작 및 연구자들이다.

전시는 복합2관 1층을 다양하게 활용, 지구의 표면으로 표현했다. 토양의 표면은 인간이 파괴한 생명과 그 너머의 존재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전제조건을 암시한다. 생명사랑을 넘어 나와 세계, 예술과 기술의 관계성을 생각해보는 모티브다.

프로젝트는 모두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R 크리에이터스 분야는 앞서 신시가지 팀 외에도 이유리, 류필립, 장수진, 룹앤테일(김영주·조호연), 로베르토 산타구이다, 아이린 아그리비나·하리오 휴토모가 참가했다.

두 번째로 R 디자인 부분은 권원덕, 오화진, 이재익, 임영빈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이재익의 '크레이터'(The Craters)는 어떤 종이 세대를 거치며 체계가 복잡해지고 환경에 적응하는지 주목했다. 이는 '팬데믹의 충격이 주는 변화를 변주로 활용하기'라는 주제와 맞물린다. 지표면에 떨어진 운석의 흔적인 충돌구(crater) 안에 형성되는 새로운 질서의 생태계를 현대와 전통의 조형 기법으로 시각화한다.

세 번째 R 다이얼로그 분야는 박주희, 유현주, 이광석, 허상훈이 참여했으며, 마지막으로 시어터 분야는 윤종연, 설유진, 수랏 케이시크람, 판룻크리찬차이가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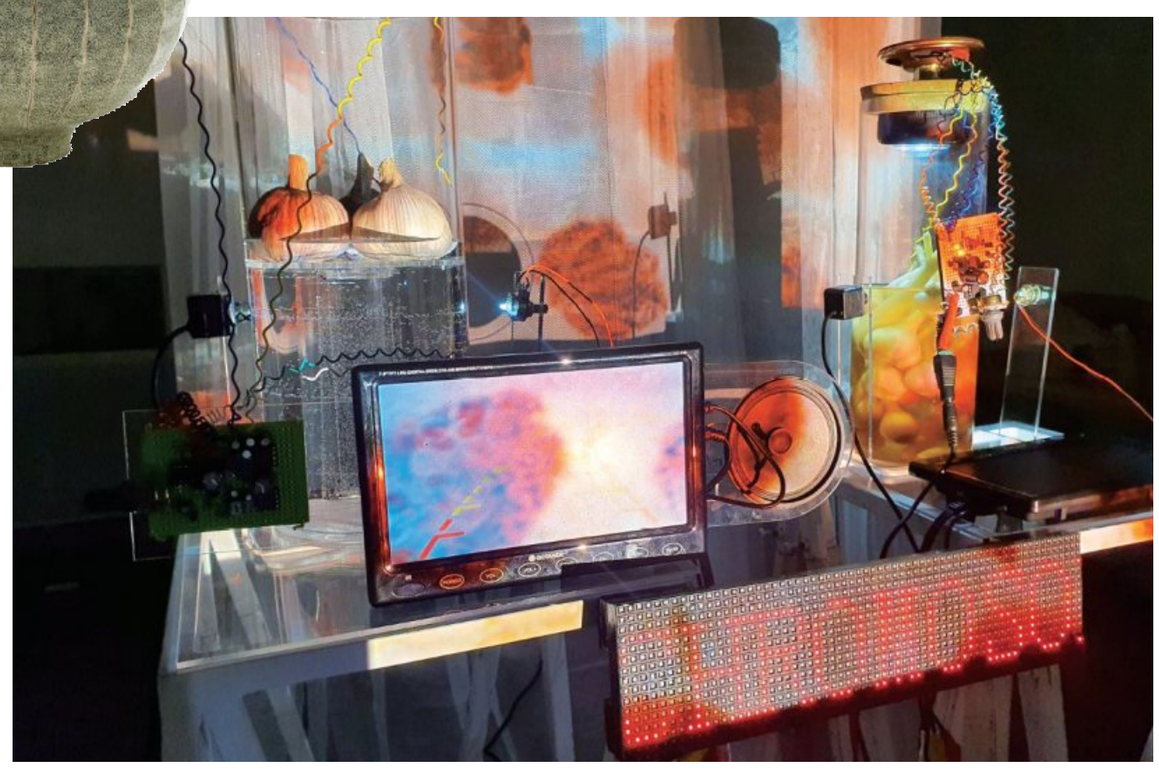
21일엔 다이얼로그 참여자가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원탁회의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 주제, 작가, 기술 분야 연구 논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유사한 분야를 연구한 창작부분 참여자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ACC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실시간 토론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ACC는 이번 전시를 위해 다이얼로그, 디자인, 크리에이터스(아트&테크놀로지), 시어터 분야의 창·제작 및 연구자를 선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연수회 등을 통해 각자의 창·제작 작품과 연구 결과물을 완성했다.

한편 2022'ACC_R 레지던시'는 5월께 공모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재익 작 '크리에이터'



ACC '바이오필리아, 그 너머'전에서 볼 수 있는 아이린 아그리비나, 하리오 휴토모 작 '알리신의 미시적 힘' 〈ACC 제공〉

보헤미안들의 도시, 파리

'11시 음악산책' 27일 광주문예회관

김이곤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이 오는 27일 오전 11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라는 제목으로 올해 두번째 공연을 진행한다.

11시 음악산책은 평소 문화생활을 쉽게 즐기지 못했던 시민을 위한 공연으로 김이곤이 해설자로 나서 국내외 활발한 연주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흥미로운 클래식 세계로 안내한다.

강수정

이번 콘서트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파리의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일컫는 '벨 에포크'의 시대적 배경과 그 시절 활동했던 인문예술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는 여행 인문학 콘서트로서 벨 에포크 시대 파리 속 명소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학적 이야기를 김이곤의 해설로 들어 본다.

이날 무대는 소프라노 강수정,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남과 박현, 비올리스트 김혜용, 첼리스트 정광준이 함께해 뮤지컬 '레 미제바블'의 주요 넘버 쇤베르그의 '난 꿈을 꾸었네, 베르디의 오페라 '축배의 노래', 라벨의 현악 4중주 바장조 2악장, 에릭 사티의 '난 그대를 원해요'와 짐노페디 1번, 로맨틱한 프랑스 샹송 메들리, 뮤지컬 '파리의 미국인'의 넘버 조지 거슈인의 '아이갓 리듬'을 들려준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35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깨비 대학' '살어리랏다'

광주시 창작 희곡 공모전 우수상

광주시 창작 희곡 공모전에서 이민우 씨의 '도깨비 대학'과 주혁준 씨의 '살어리랏다'가 대상작 없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민우

광주서구문화원이 서구청 지원을 받아 공모한 이번 공모전은 광주다움의 콘텐츠를 찾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마련됐다.

심사를 맡은 이희규 심사위원장은 "작품마다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무대의 특성과 공연예술의 특성을 잘 살린 작품에서부터 연극적 공간과 희곡적 언어의 세련된 대사 처리에 노력을 요하는 작품도 있었다"고 밝혔다.

주혁준

'도깨비 대학'은 광주의 선구적 화가 강용운, 오지호, 배동신, 양수아 등 실재 인물들을 다룬 작품으로 "극적 요소가 없이도 재미있게 극을 끌고 가는 솜씨가 눈에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살어리랏다'에 대해서는 "전설같은 도깨비와 토속적 신앙이 결합된 놀이로서의 연극, 유희적 판놀음을 통해 상황 속에 몰입하게 했다"는 평이 따랐다.

한편 이번 수상작들은 오는 11월 광주시민연극제 무대에서 만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00일동안 매일매일 쓴 136가지 이야기

이미란 소설가 등 글쓰기 공동체 14인, '천번의 로그인' 펴내

글쓰기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이 100일 동안의 글쓰기 결과를 책으로 펴내 눈길을 끈다. '천 번의 로그인'(경진출판)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책은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글을 쓴다'는 콘셉트로 필자들은 봄, 가을 두 시즌씩 다섯 해 동안 100일 글쓰기를 진행했다.

필자로는 소설가인 이미란 전남대 국문과교수를 비롯해 모두 14명이 참여했다. 이번 책은 자신의 일상과 사유를 글쓰기로 공유하고 서로가 독자가 돼 정서적 지지자가 된다는 점뿐 아니라 글쓰기 공동체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글 내용은 저자들이 남긴 소소한 일상과 사유, 서로의 글에 남긴 공감 외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 자신의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철학적 사유 등이 포함돼 있다.

'오백 번의 로그인' 후속편이기도 한 책에는 모두 136편의 글이 실려 있다. 참여자의 글 가운데 두세 편씩을 골라 엮었다. 교육, 종교, 의료,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저자로 참여한 덕분에 개성적인 글을 공유할 수 있다.

100일 글쓰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매력은 다양하다.

하루의 일과 속에서 글쓰기에 적합한 소재를 발견했을 때의 짜릿함, 동료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감수성에 공감하면서 느끼는 충일감, 동료들의 따뜻한 피드백을 통해 느껴지는 고양감, 무엇보다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작업을 수행하며 느끼는 소속감은 비할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었다.

이 밖의 저자로는 김세영, 김현정, 강의준, 조부덕, 임유진, 박비오, 진아위, 김미경, 곽경숙, 최혜영, M. 클리포드, 김덕희, 홍운기가 참여했다. 이들은 글을 통해 서로를 잘 이해하는 인생의 동반자를 상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란 교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쓰기로 공유하고 서로의 독자가 되어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 주는 글쓰기 공동체가 알려지고 이러한 모임이 늘어나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글쓰기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도 팝콘도 '1000원'

25일~5월1일 멀티플렉스 100개 상영관 '무비 위크'…'암살' 등 한국영화 10편

'한국영화 10편 1000원으로 본다'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영화계가 활기를 찾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 유치에 나섰다.

영화진흥위원회와 멀티플렉스 극장, 배급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빠졌던 한국 영화와 영화관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홍보 영상도 제작한다.

현재 영화관의 경우 좌석 제한과 영업 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된 상태며 25일 부터는 영화관 내 취식도 허용된다.

영화계는 취식 금지가 해제되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비 위크'를 진행한다.

각 극장에서 1000원에 판매하는 무비 위크 프리패스 팔찌를 구매하면 '한국 영화 스페셜 기획전' 상영작을 하루 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무비 위크 프리패스 팔찌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멀티플렉스 극장의 전국 100개 상영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팝콘(중·M 사이즈)도 1000원에 판매한다.

상영작은 모두 10편이다. 조난주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으로 공유·정유미가 주연을 맡은 '82년생 김지영', 독립운동가 박열의 이야기를 담은 이준익 감독의 '박열', 조승우 주연의 '명당' 등이 상영된다.

또 이병헌 주연의 '남산의 부장들'과 최동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전지현·이정재·하정우 등이 열연한 '암살', 역사 속에 묻혔던 양만춘 장군의 이야기를 담은 조인성 주연의 '안시성', 오컬트 무비 '사바하' 등도 만날 수 있다.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코믹 영화들도 상영된다. 1600만 관객을 모은 '극한 직업'과 라미란이 주연을 맡아 웃음 폭탄을 터트리는 '정직한 후보'가 관람객을 만난다.

27일 문화의 날에는 일반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고, 팝콘과 탄산음료 세트를 1000원에 판매한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25일 침체된 한국영화와 영화관을 살리기 위한 홍보영상을 공개한다. 1, 2차 영상은 극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차 영상은 개봉예정작에 출연한 배우와 함께하는 캠페인 영상이다. 영진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82년생 김지영'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2022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할 공연단체를 비롯해 체험과 놀이, 마켓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프린지는 '시민, 예술애(愛) 물들GO'를 슬로건으로 '광주'와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시민 프린지를 지향한다. 광주시 전체를 마당삼아 5개 구와 마을로 확장한 축제를 펼치며 크게 '우리동네 프린지', '민주광장 프린지'로 구성된다.

우리동네 프린지는 6월~9월 중 5·18민주광장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광주시 5개 구, 마을(동네)로 확장해 10회 공연을 펼친다. 민주광장 프린지는 9월~10월 중 5·18 민주광장에서 전문적인 거리예술축제로 5회 진행된다.

우리동네 프린지는 공연, 체험·놀이, 마켓 총 3개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 공연은 퍼포먼스·마임 등 장르에 상관없이 거리에서 시연 가능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체험·놀이분야는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마켓은 제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 셀러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동네 프린지 참여 공연, 체험, 마켓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 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2022fringe@gmail.com)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 062-670-798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